Eugene's FICC Update

유진투자증권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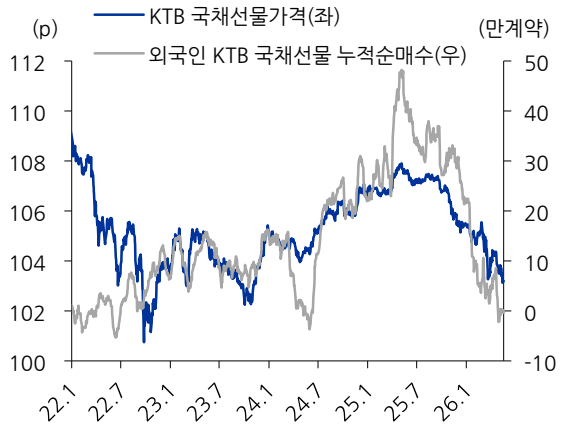
Fixed Income 김지나_ 02)368-6149_jnkim0526@eugenefn.com RA 차영후_ 02)368-6138_yhcha@eugenefn.com

Fixed Income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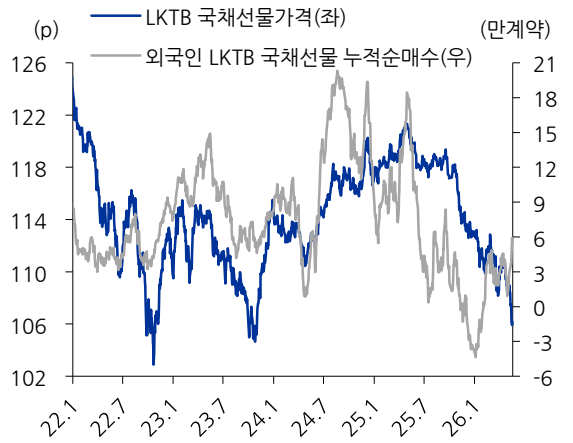
(단위: %,bp, 틱)

		5/19일	1D	1W	YTD
국내 채권	한국 국고채 3년물	3.751%	-0.6	7.7	79.8
	한국 국고채 10년물	4.210%	-2.9	15.4	82.5
	장단기금리차(10년-3년,bp)	45.9	48.2	38.2	43.2
	3년 국채 선물(KTB)	103.20	4.0	-19.0	-224.0
	10년 국채선물(LKTB)	106.18	27.0	-127.0	-674.0
해외 채권	미국채 2년물	4.120%	7.3	12.8	64.8
	미국채 10년물	4.667%	7.9	20.3	49.9
	장단기금리차(10년-2년,bp)	54.7	54.1	47.2	69.6
	독일국채 10년물	3.189%	4.1	8.4	33.4
	호주국채 10년물	5.060%	-5.3	3.2	30.6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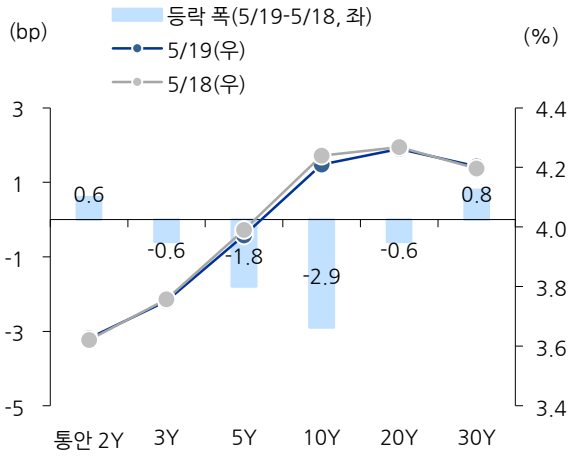
외국인 3년 국채선물(KTB) 수급



외국인 10년 국채선물(LKTB) 수급



일간 금리 등락 폭 & 커브



국내 채권시장 동향

- 국내 채권시장 불 플래트닝 마감. 30년 금리는 상승.
- 종전 기대감 약화된 가운데 원/달러 환율 상승으로 불안감 이어짐. 시간이 지날수록 금리 하락폭 확대. 호주 RBA 통화정책회의 의사록에서 3번의 인상 끝에 이제 정책 여파를 지켜볼 여유가 생겼다는 내용을 확인했고, 국내 기관의 저가매수가 일부 유입된 것으로 추정.
- 국고 30년물은 일본, 영국에 이어 국내 재정 우려 및 국채발행계획 등을 앞둔 경계심에 홀로 상승세 보이며 장중 한 때 10년물과 커브 역전이 정상화되기도 함.

전망 및 향후 주요 이벤트

- 미국 채권시장 약세 마감.
- 트럼프 대통령, 기자들에게 이란에 대한 공격을 최대 다음주 초까지 연장할 수 있다면서 이란에게 남은 시간은 2~3일 정도로 제한되어 있다고 언급했음. WSJ에서도 이란의 입장이 이전과 달라지지 않았다면서 종전에 의구심을 가진다는 보도를 냈고, 이에 금리 상승세 확대되기 시작.
- 국채 30년 금리는 5.19%까지 상승하며 금융위기 이전 수준에 도달. 미국 ADP 민간고용 주간 예비치도 전주 대비 확대되며 금리 상승 견인.

자료 출처: 연합인포맥스, Refinitiv, 유진투자증권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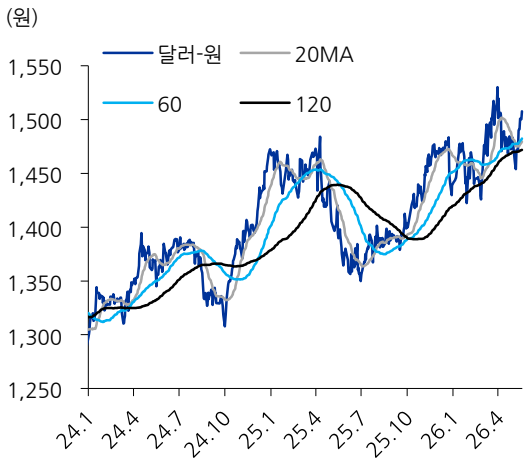
본 자료는 참고용 자료일 뿐이고, 특정주식에 대한 투자목적으로 작성된 것이 아닙니다. 본 자료는 담당자가 신뢰할 만하다고 판단하는 자료나 정보에 근거하여 작성되었지만, 그 정확성이나 완전성을 보장할 수는 없습니다. 따라서 본 자료를 참고한 고객의 투자의사 결정은 고객 자신의 판단과 책임아래 이루어져야 하고, 당사는 본 자료의 내용에 의존하여 행하여진 일체의 투자행위의 결과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을 것임을 밝힙니다. 아울러 본 자료는 당사 고객에게만 제공되는 자료로서 당사의 동의 없이 본 자료를 무단으로 복제/전송/인용/배포하는 행위는 법으로 금지되어 있습니다

FX & Commodity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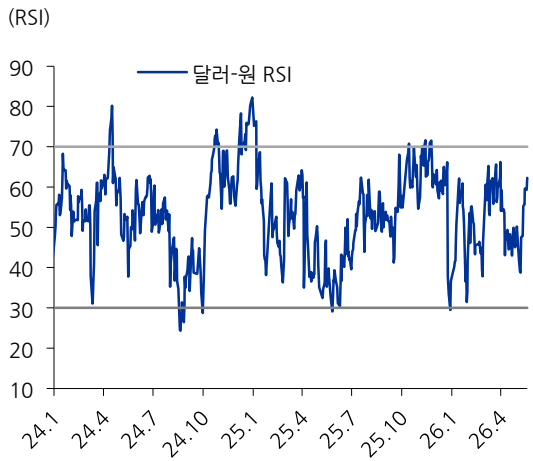
(단위: %, $)

		5/19일	1D	1W	YTD
환율	원/달러	1,507.80	0.5%	1.2%	4.8%
	달러지수	99.32	0.3%	1.0%	1.0%
	달러/유로	1.161	-0.4%	-1.1%	-1.2%
	위안/달러(역외)	6.82	0.3%	0.4%	-2.4%
	엔/달러	159.06	0.2%	0.9%	1.5%
	달러/파운드	1.340	-0.3%	-1.1%	-0.5%
	헤알/달러	5.05	0.7%	3.2%	-8.5%
상품	WTI 근월물($)	107.77	-0.8%	5.5%	87.7%
	금 현물($)	4,482.36	-1.9%	-4.9%	3.8%
	비트코인($)	76,835.00	-0.1%	-5.1%	-12.6%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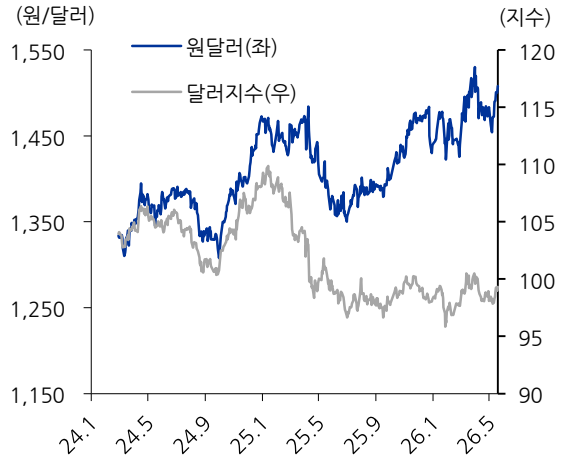
달러-원 환율 및 이동평균선



달러-원 환율 상대강도지수



달러-원 환율 및 달러인덱스 동향



원달러 환율 동향

- 달러-원 환율은 서울 외환시장에서 전일 대비 +7.50원 상승한 1,507.80원에 마감하며 지난 4/2일(1519.70원) 이후 최고점 도달(야간 1,508.70원).
- 5/19일 예정됐던 이란 공격을 보류하겠다는 트럼프 발언에도 장중 유가 하락 폭이 미미했고, 아시아장 달러가 계속 오르는 등 위험회피 심리 우세 양상.
- 외국인이 -6.2조원 코스피를 투매(9거래일 연속 총 -41.8조원)하면서 커스터디 물량 출회에 따른 환율 상방 압력 지속.
- 달러-원은 야간 거래에서 추가 상승. 물가 우려에 미 장기금리 및 달러인덱스 상승한 영향.
- 환율은 증시보다 유가와 이란 문제에 더 민감한 흐름을 이어가고 있는 것으로 평가됨.

달러 지수 동향 및 관전 포인트

- 달러인덱스는 중동 불확실성으로 미국 장기금리 상승(10년물 4.67%, 30년물 5.18% 2007/7월 이후 최고 수준)에 따라 상승(DXY +0.3%).
- 미 국채 금리는 중동사태 해소 지연으로 베어 스티프닝 양상. 30년물 금리는 이란 전쟁이 시작된 2/28일 이후 50bp 이상 상승. 10년물은 작년 1월 이후 최고치 기록.
-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에 대한 공격을 최대 다음 주 초까지 연기할 수 있음을 밝혔으나 경계감 유지되며 유가 하락은 제한(WTI -0.8%).
- 한편 달러-엔은 단호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는 일본 재무상의 구두개입에도 강달러에 하락(달러-엔 +0.2%).